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8월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6.0%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었으나, 전기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0.1%).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4%).

◆ 2021년 8월 소비는 전월대비 0.8%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1%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1.8%)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8%).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3%) 및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1.8%).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6%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2%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8월	7월p	8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0.1	-0.6(4.5)	-0.2(6.0)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0.7	0.2(7.7)	-0.7(9.6)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0.3	-0.2(7.3)	-0.4(10.1)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4.6	-1.8(-8.0)	1.6(0.3)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4	0.1(4.0)	-0.6(4.4)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3.0	-0.5(7.9)	-0.8(3.8)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1.6	2.0(10.9)	-5.1(11.8)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7	0.6(2.6)	0.5(2.5)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9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지수』, 각호.

◆ 2021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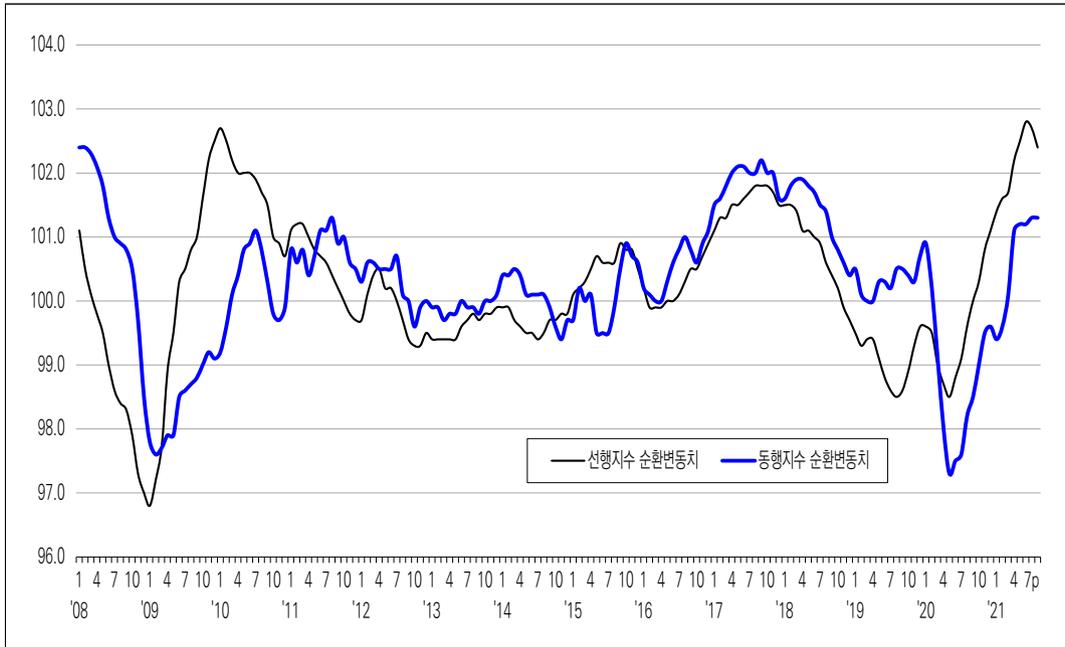
○ 2021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100)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1%), 주택·수도·전기·연료(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음식·숙박(0.2%)은 상승,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보건(-0.1%), 주류·담배(-0.1%), 기타 상품·서비스(-0.2%), 교육(-0.2%), 교통(-0.2%), 오락·문화(-0.9%)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3%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대비 1.0% 상승함.

◆ 2021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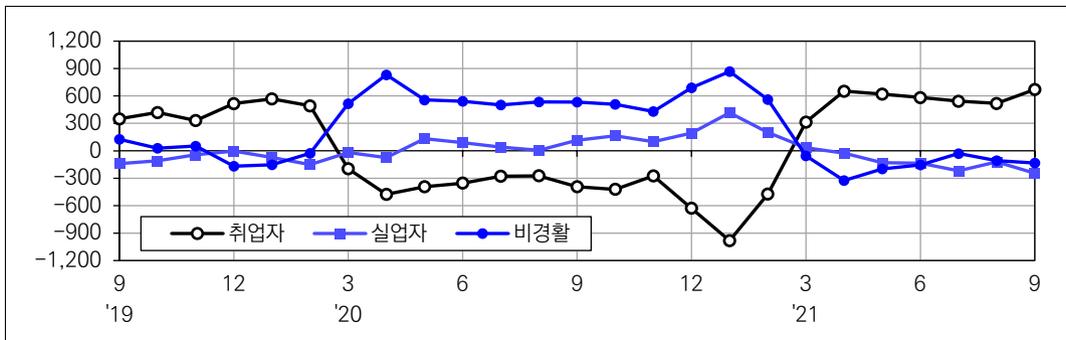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도 증가

○ 2021년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7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전월대비¹⁾ 5만 5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9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를 이어감.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됨. 운수창고, 정보통신 및 교육서비스는 증가폭이 확대됨. 숙박음식은 증가로 전환함.
- (연령별) 9월은 20대와 50대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경활은 감소폭이 확대됨. 30대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비경활은 감소폭이 확대됨. 20~30대는 전월대비 취업자도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 9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및 임시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상용직은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운수창고 및 교육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건설업의 감소 전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9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전월대비는 7만 6천 명 증가함.
- (실업자) 9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4만 4천 명 감소하여 8월(-12만 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됨. 반면 전월대비 실업자는 5만 5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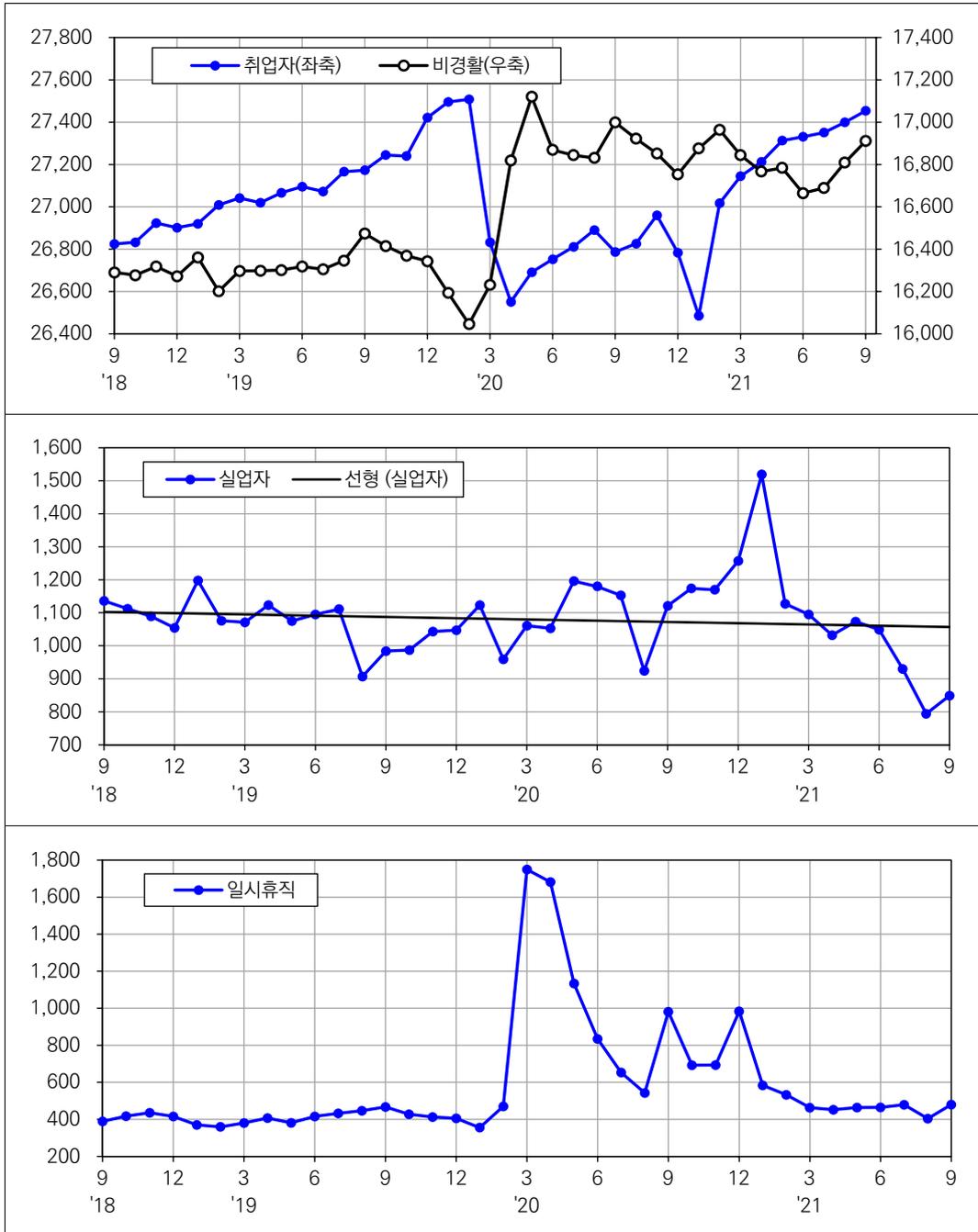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9월은 20대와 50대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30대는 감소폭이 축소됨.

-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및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50대 취업자는 작년 감소 기저의 영향이 큼. 전월대비로도 소폭 증가함.
- 30대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 운수창고 및 교육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됨. 사업지원 및 개인서비스는 감소폭이 축소됨. 전월대비 취업자도 증가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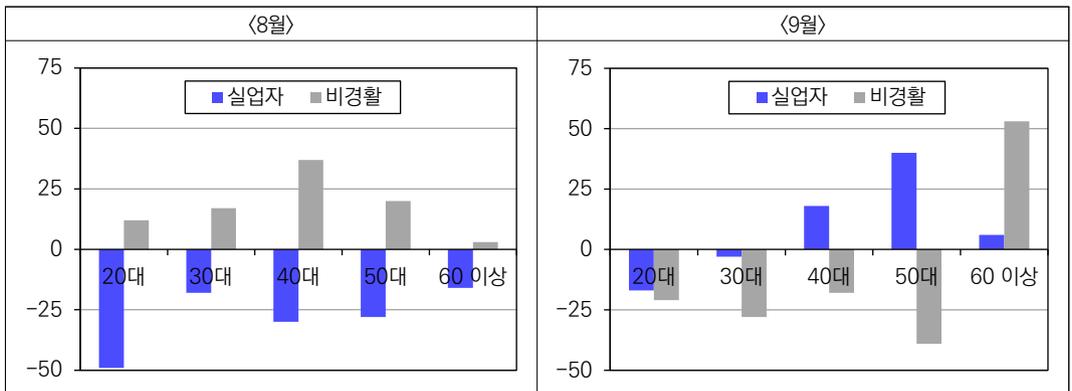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17	6	16	(13)	166	137	202	(24)	-122	-88	-12	(22)
실업자	1	-4	-4	(6)	-99	-70	-137	(-17)	-29	-6	-61	(-3)
비경황	-163	-139	-141	(-24)	-60	-74	-82	(-21)	5	-49	-66	(-28)
실업률	-0.6	-2.1	-2.6	(2.3)	-2.6	-1.9	-3.6	(-0.4)	-0.4	-0.1	-1.1	(0.0)
고용률	1.3	0.6	1.1	(0.6)	2.5	2.2	3.3	(0.5)	-0.1	0.3	1.3	(0.4)
	40대				50대				60세 이상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11	11	18	(-5)	109	76	124	(4)	361	377	323	(-12)
실업자	-33	-22	-35	(18)	-54	-21	-9	(40)	-3	1	2	(6)
비경황	-53	-62	-52	(-18)	-65	-59	-112	(-39)	305	276	320	(53)
실업률	-0.5	-0.3	-0.5	(0.3)	-0.8	-0.3	-0.2	(0.6)	-0.2	-0.1	-0.1	(0.1)
고용률	0.8	0.9	0.8	(0.0)	1.4	0.9	1.4	(0.0)	0.6	0.7	0.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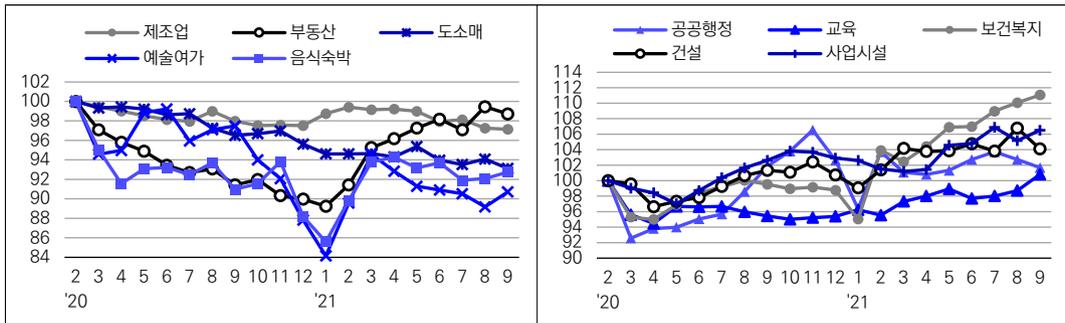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부동산, 도소매, 건설, 공공행정이 감소함. 제조업은 정체된 반면 음식숙박, 예술여가, 보건복지, 사업시설, 교육은 전월보다 개선됨.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 교육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2	37	22	7	7	-9	5	0.4
광업	-1	1	-1	-1	2	-2	-1	-8.3
제조업	6	-76	-37	9	-39	-5	-35	-0.8
전기·가스·증기	-7	-3	-3	0	4	4	8	11.9
수도·원료재생	21	18	20	5	-2	2	5	2.9
건설업	92	123	57	-19	60	-54	-13	-0.6
도매 및 소매업	-186	-113	-122	-16	20	-34	-30	-0.9
운수 및 창고업	121	107	163	33	-15	34	52	3.3
숙박 및 음식점업	-12	-38	39	-41	4	15	-22	-1.0
정보통신업	46	75	97	-19	20	13	14	1.5
금융 및 보험업	36	22	5	-16	-13	-8	-37	-4.5
부동산업	24	35	41	-6	13	-4	3	0.6
전문·과학·기술	57	55	59	-15	-2	12	-5	-0.4
사업시설관리지원	87	48	52	28	-23	18	23	1.6
공공행정·사회보장	91	47	-1	11	-11	-12	-12	-1.0
교육서비스업	27	51	98	6	13	39	58	3.2
보건 및 사회복지	237	243	280	47	26	24	97	3.8
예술·스포츠·여가	-28	-43	-34	-2	-7	8	-1	-0.2
협회·단체·수리·기타	-50	-41	-41	2	-1	-12	-11	-1.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5	-24	-21	-1	3	2	4	4.9
국제 및 외국기관	-5	-6	-3	-2	0	2	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9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및 임시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임시직은 운수창고 및 교육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음식숙박의 증가폭 확대는 기저의 영향.
- 일용직의 감소폭 확대는 주로 작년 증가 기저 효과로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된 영향임.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주로 건설업 및 부동산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61	324	515	77	-5	72	144	1.0
임시직	352	312	340	3	16	41	60	1.3
일용직	-170	-89	-121	-31	68	-54	-17	-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1	-61	-48	1	21	-17	5	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7	56	22	-19	-31	-4	-54	-1.3
무급가족종사자	-16	-23	-37	-5	-12	-15	-32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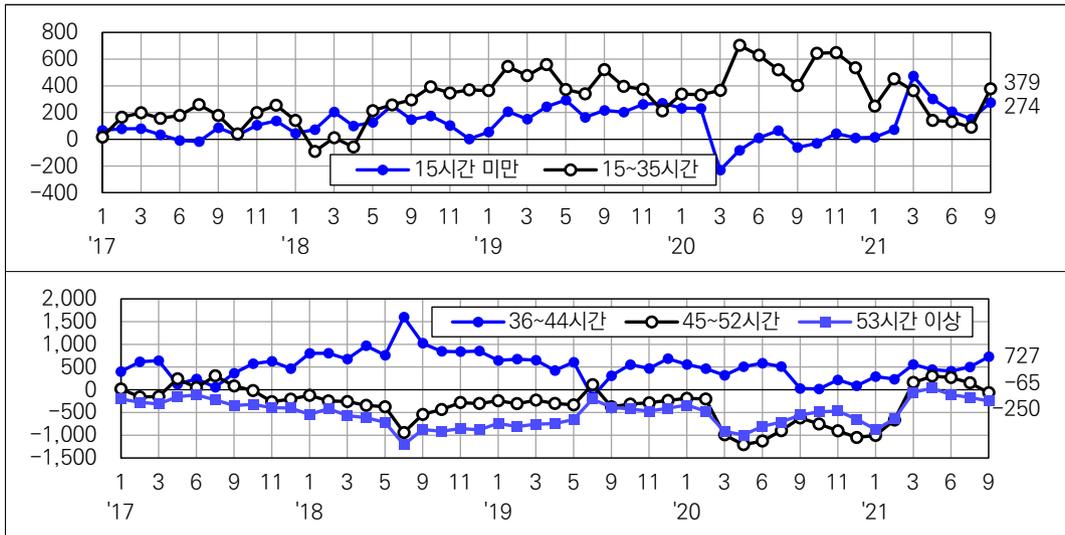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농림어업	-6	-6	-8	3	-2	-3	-3	12	6	-12	-11	1	32	36	37
제조업	18	-44	-9	-8	-17	-12	-12	-5	1	-13	-15	-19	3	-4	-2
건설업	66	83	103	29	-15	-8	-44	12	-61	6	0	-3	30	38	20
도소매	-88	-48	-32	-2	4	-1	-39	-26	-25	-27	-21	-26	7	7	-9
운수창고	62	52	74	13	22	38	4	2	11	-4	0	-2	44	31	39
음식숙박	-24	-28	-23	33	33	65	-52	-58	-32	6	-5	1	22	25	30
정보통신	38	70	87	17	16	23	4	2	3	-2	-2	-1	-10	-11	-15
금융보험	-11	-6	-17	43	33	29	-2	-2	-4	-1	-1	-1	8	-1	-1
부동산	19	26	28	7	14	16	-1	-3	1	-8	-14	-6	11	13	3
전문과학기술	57	62	82	13	13	-6	2	-2	-3	-5	-3	-5	-5	-10	-6
사업관리지원	50	4	18	22	28	17	10	6	3	-5	6	6	8	3	6
공공행정	64	82	62	26	-35	-63	1	0	0	-	-	-	-	-	-
교육서비스	2	2	16	42	69	98	2	1	3	-4	3	1	-22	-31	-26
보건복지	97	75	115	154	171	164	-7	-3	-1	3	9	9	-8	-6	-3
예술스포츠	21	4	4	-3	3	4	-16	-18	-13	-9	-11	-7	-15	-14	-16
협회단체	-10	-13	8	-17	0	-2	-15	-13	-17	4	4	3	-14	-17	-29
가구 내 고용	1	0	0	-19	-20	-18	-1	0	2	0	0	0	-5	-4	-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9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함.
- 45시간 이상 및 일시휴직자의 비중 감소 및 44시간 미만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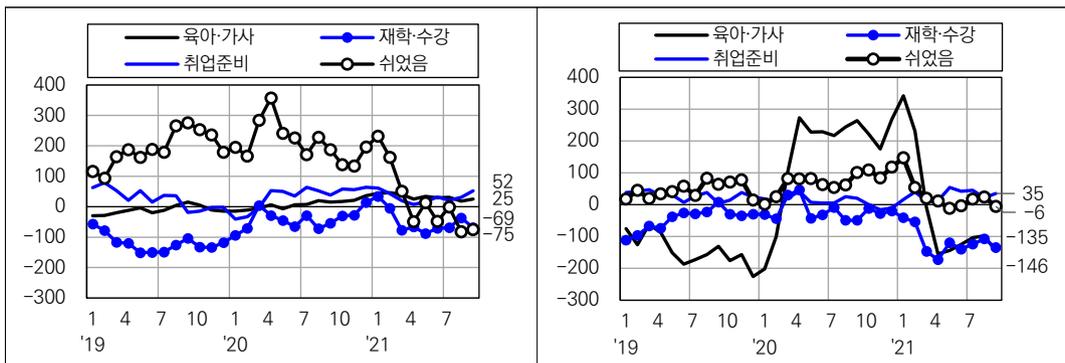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8월 -10.6만 명)됨.
- 남성은 재학·수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취업준비는 증가폭이 확대됨. 여성은 육아·가사 및 재학·수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쉬었음이 감소 전환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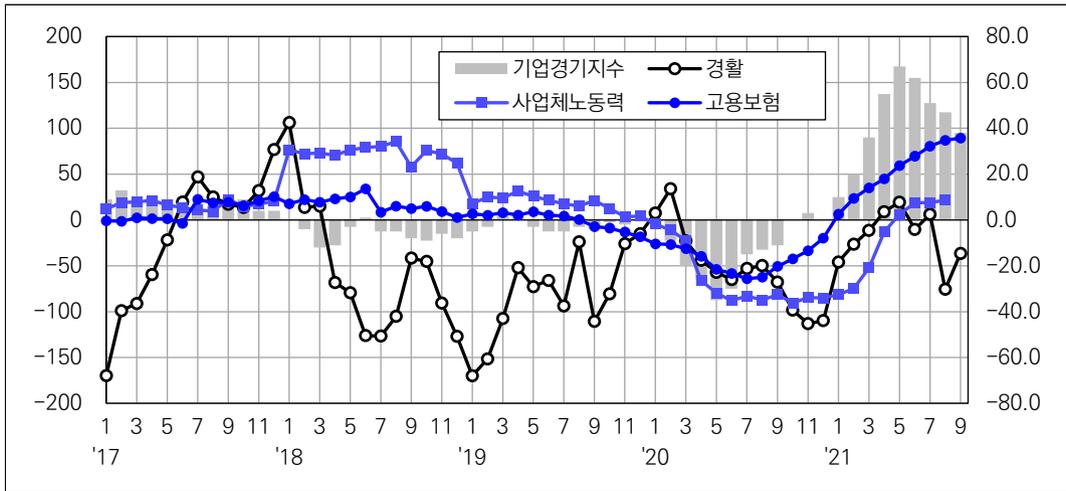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2021년 9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가 지속됨. 피보험자는 1차 금속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식료품,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5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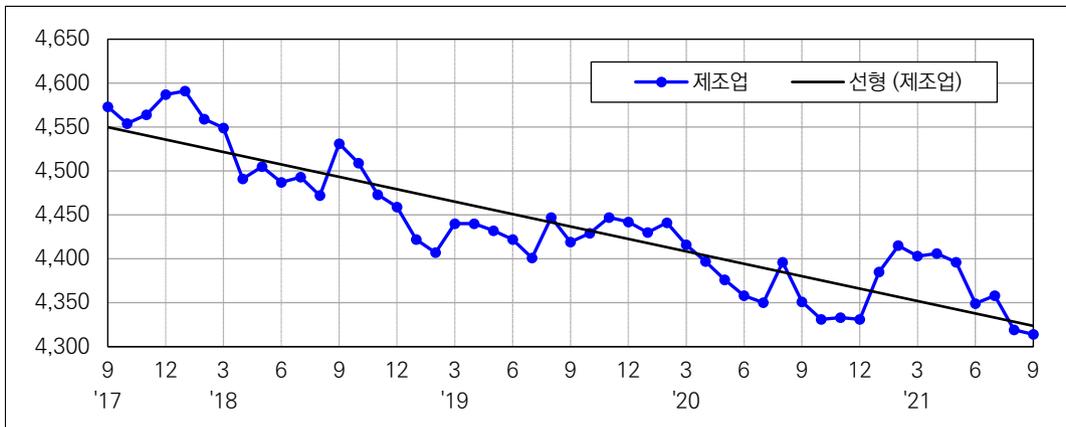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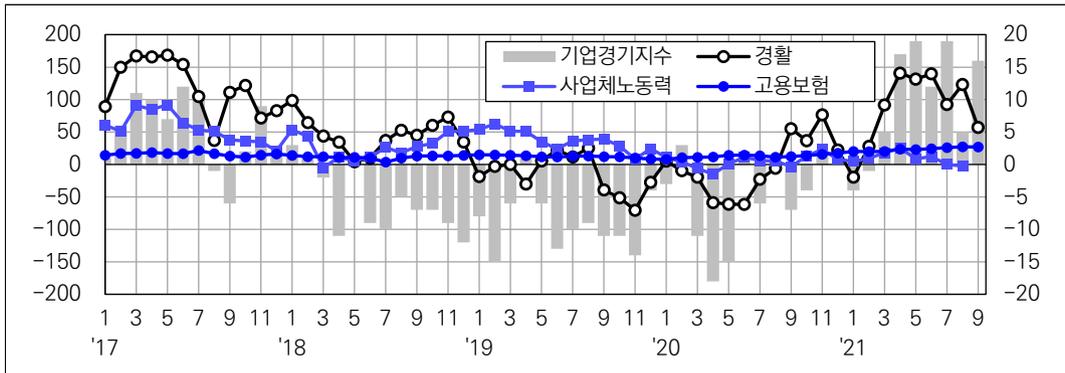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9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작년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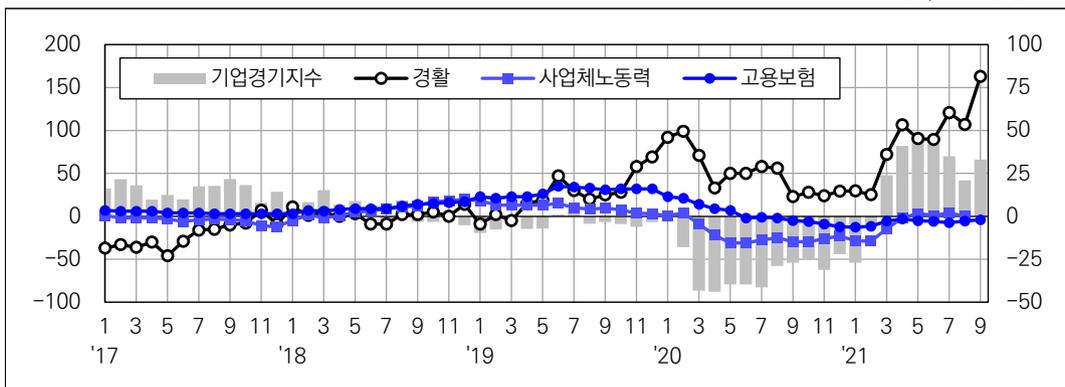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9월 서비스업은 지난해 코로나19 기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운수창고) 취업자는 상용·임시직, 남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도 증가함.
 - (숙박음식) 취업자는 증가 전환함. 임시·일용직 및 40대 제외 연령대에서 개선됨.
 -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주로 상용직 및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의 증가폭이 확대됨. 상용·임시직, 30대, 전문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20대와 40대, 단순노무종사자는 증가 전환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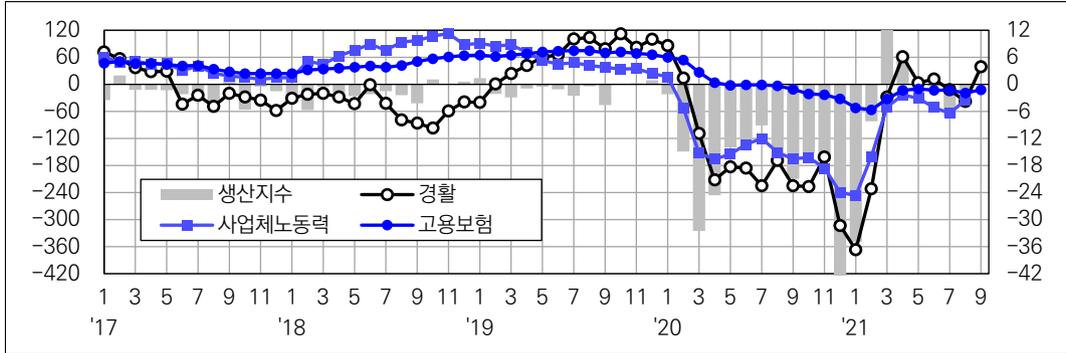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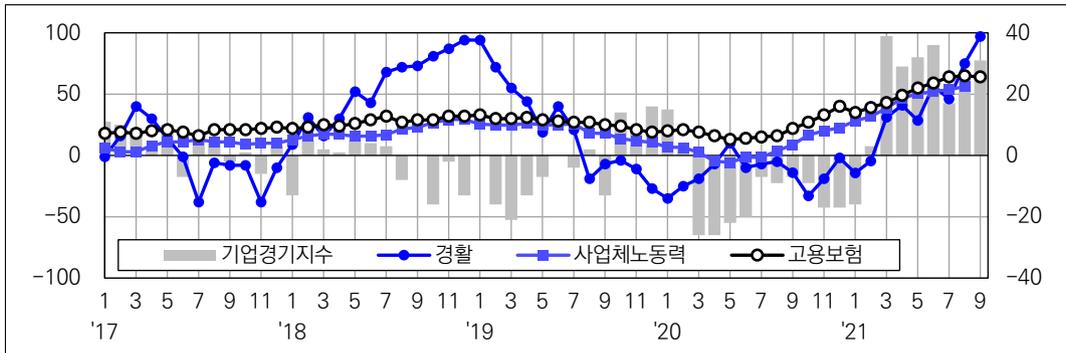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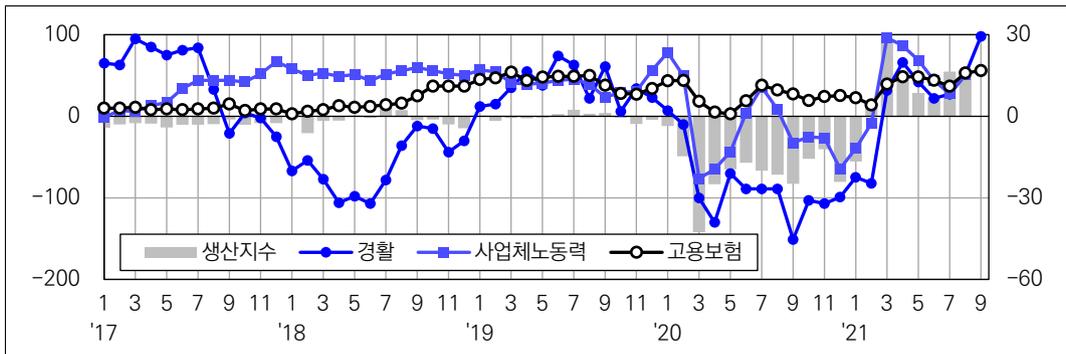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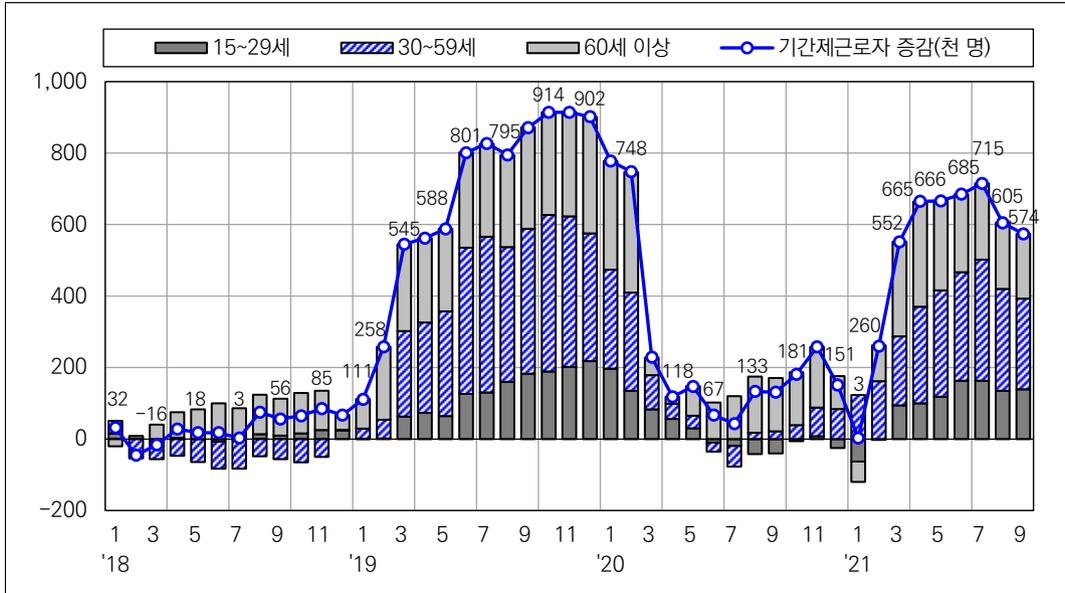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1년 9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7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주로 30~59세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증사상 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2021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6만 9천 원(6.9% 증가)임.

- 2021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8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1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감소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에 따른 특별급여의 증가 등에서 비롯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둔화는, 전년동월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7월에는 건설업의 임금상승폭 둔화,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7월	7월	1~7월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500 (0.7)	3,526 (1.2)	3,656 (4.5)	3,769 (6.9)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684 (-0.1)	3,720 (0.7)	3,984 (7.1)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4 (2.0)	3,082 (1.8)	3,161 (3.2)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5 (-3.1)	191 (-3.5)	204 (4.8)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26 (12.3)	446 (-4.2)	489 (14.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20 (8.1)	1,623 (7.1)	1,690 (4.3)	1,713 (5.5)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4.9 (0.5)	104.9 (0.3)	107.6 (1.9)	107.6 (2.6)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2	0.9	2.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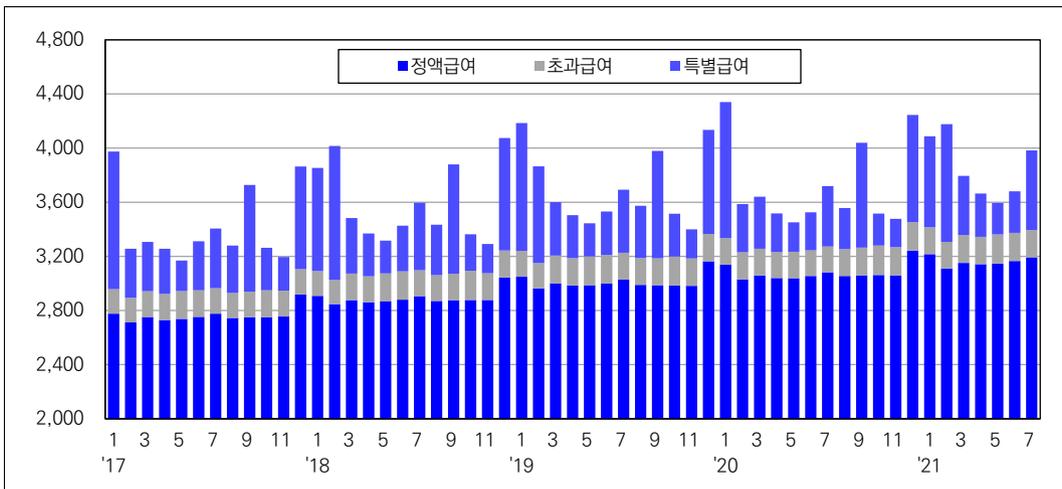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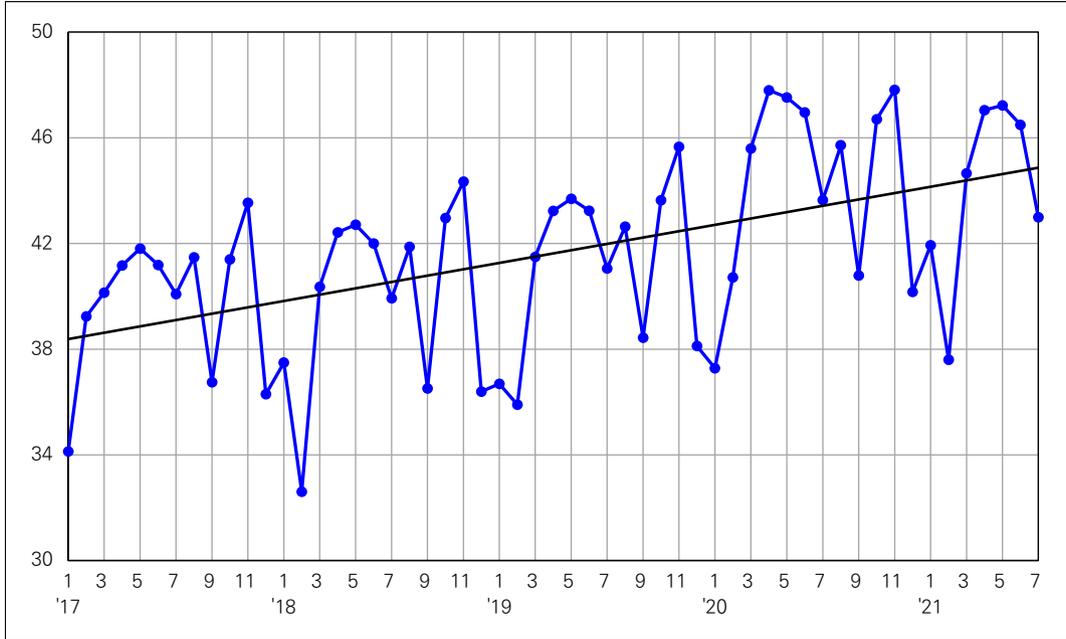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6%, 13.5%임.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13.6% 증가함.
- 7월 기준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7%, 29.0% 상승함.
- 1~7월 평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은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성과급이 확대되었고,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2021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부동산업(-5.2%)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7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75만 3천 원)이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18만 2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3만 원), 광업(521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7%)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0.8%), 금융 및 보험업(8.9%)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7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0만 3천 원)이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8만 7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3만 3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임금(376만 9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500	3,526	3,656 (4.5)	3,769 (6.9)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339	4,908	4,421 (1.9)	5,217 (6.3)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3,939	3,955	4,189 (6.3)	4,383 (10.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428	6,235	6,480 (0.8)	6,182 (-0.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756	3,739	3,945 (5.0)	3,890 (4.0)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32	2,997	3,072 (1.3)	3,071 (2.5)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390	3,428	3,516 (3.7)	3,595 (4.9)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496	3,953	3,712 (6.2)	4,284 (8.4)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75	1,883	1,883 (0.4)	1,903 (1.1)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654	4,487	4,847 (4.1)	4,668 (4.1)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523	6,200	7,058 (8.2)	6,753 (8.9)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55	3,103	2,939 (2.9)	2,941 (-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806	4,865	5,008 (4.2)	5,530 (13.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86	2,381	2,466 (3.3)	2,487 (4.4)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423	3,535	3,402 (-0.6)	3,545 (0.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21	2,925	2,980 (2.0)	3,007 (2.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866	3,120	2,963 (3.4)	3,152 (1.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27	2,581	2,672 (5.7)	2,733 (5.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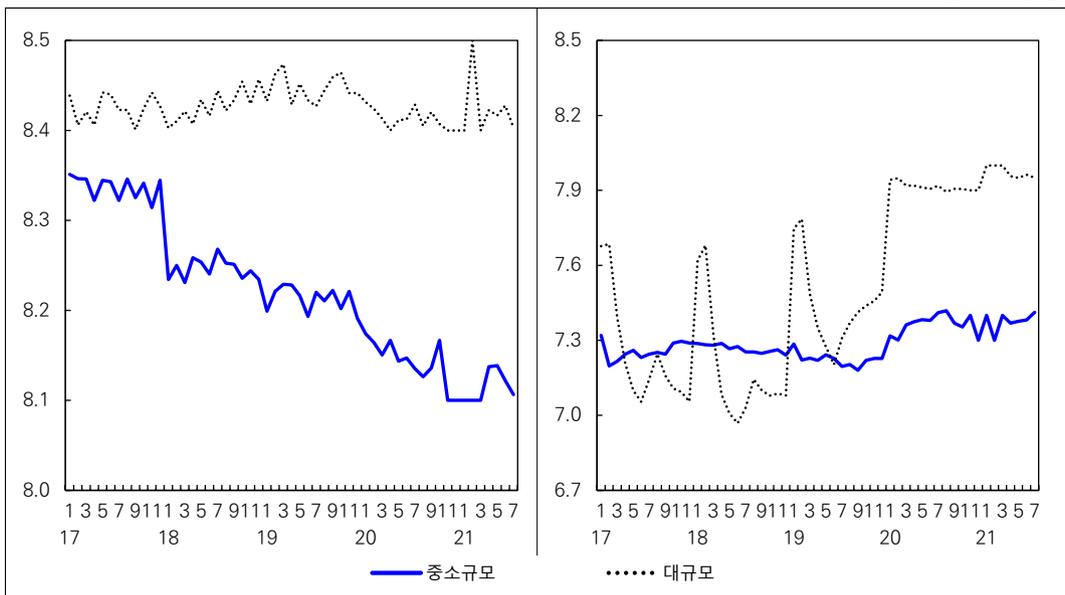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 2021년 7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2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5.2시간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7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1.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7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4.9시간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61.0(-1.6)	172.5(-1.9)	160.5(-0.3)	167.8(-2.7)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8.4(-2.0)	181.3(-2.2)	167.8(-0.4)	176.0(-2.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60.8(-1.5)	173.8(-1.8)	160.2(-0.4)	168.5(-3.0)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2.6)	7.5(-11.8)	7.7(1.3)	7.5(0.0)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5.6(-0.1)	98.1(0.5)	97.1(1.6)	99.2(1.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4.2(-0.5)	175.9(-2.2)	163.7(-0.3)	171.0(-2.8)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5.2(-1.5)	177.0(-2.6)	164.7(-0.3)	172.1(-2.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4.5(-1.2)	167.0(-2.1)	153.8(-0.5)	161.5(-3.3)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7(-6.1)	10.1(-9.0)	10.9(1.9)	10.6(5.0)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6.7(27.5)	132.6(6.0)	128.8(1.7)	136.0(2.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7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1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84.4시간)이며, 다음으로 광업(184.0시간), 제조업(182.1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0.5시간)이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5.0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54.1시간) 순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61.5	173.1	161.0(-0.3)	168.3(-2.8)
광업	176.6(0.5)	175.7(-0.5)	181.2	180.2	190.3	181.3(0.6)	184.0(-3.3)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3.2	184.2	174.7(0.9)	182.1(-1.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4.1	174.0	162.9(-0.7)	170.5(-2.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7.2	189.5	176.8(-0.2)	184.4(-2.7)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8.3	145.5	135.8(-1.8)	140.5(-3.4)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4.7	177.3	164.1(-0.4)	171.4(-3.3)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9.8	169.6	160.0(0.1)	167.5(-1.2)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50.6	160.5	147.1(-2.3)	154.1(-4.0)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5.4	179.3	164.5(-0.5)	173.1(-3.5)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4.0	178.7	162.9(-0.7)	170.7(-4.5)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3.8	186.0	171.8(-1.2)	178.5(-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3.9	178.1	162.5(-0.9)	170.7(-4.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2.6	173.1	162.4(-0.1)	169.3(-2.2)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7.3	154.2	137.1(-0.1)	145.0(-6.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9.3	170.9	158.1(-0.8)	165.7(-3.0)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51.1	163.8	152.1(0.7)	161.8(-1.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60.6	174.0	162.2(1.0)	170.3(-2.1)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4건
 -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3건)보다 11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9월 조정성립률 9.1%
 - 9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40.0%에 비해 30.9포인트 낮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9.	24	24	2	2	0	20	2	18	1	1	13	9.1
2020. 9.	13	11	4	3	1	6	1	5	0	1	4	40.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표 2〉 2012~21년 9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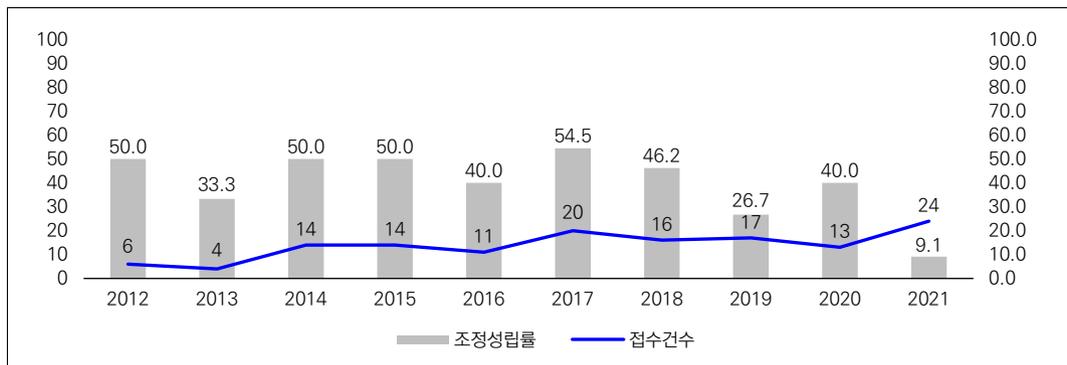
(단위: 건, %)

	2012. 9.	2013. 9.	2014. 9.	2015. 9.	2016. 9.	2017. 9.	2018. 9.	2019. 9.	2020. 9.	2021. 9.
접수건수	6	4	14	14	11	20	16	17	13	24
조정성립률	50.0	33.3	50.0	50.0	40.0	54.5	46.2	26.7	40.0	9.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9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건, %)



◆ 심판사건

-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67건
 -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98건)보다 31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2.0%(6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8.0%(132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9.	167	194	55	7	96	10	15	11	517
2020. 9.	198	145	33	8	55	10	24	15	62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7건
 - 9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9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3.3%(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6.7%(6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9.	7	9	3	0	3	3	0	0	15
2020. 9.	9	3	1	0	2	0	0	0	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KB손보CNS 콜센터 노동자들, 노동조합 설립

- 10월 5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보CNS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음.
- 지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 3일 만에 조합원 수가 3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었음(KB손보CNS의 전체 노동자 수는 800명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25%인 셈임).
- 빠른 조합원 증가 배경은 회사 매각으로 예상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 하락 문제임.
- KB손보CNS는 지난 2002년부터 LG화재 매직콜센터, 2009년 투모로플러스 컨택센터, 2012년 LIG손해보험자회사를 거쳐 2015년 KB금융지주로 편입, KB손해보험의 콜센터 자회사가 됐음.

◆ 대전 시내버스, 파업 12시간 만에 노사협상 타결

- 10월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협상이 결렬되며 9월 30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됐고 파업 12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음.
- 노조 측은 △운수종사자 시급 4.27% 인상, △현재 180만 원인 운수종사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120만 원 추가 인상, △정년 만 65세로 연장,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16일에 대해 비근무자 100% 수당 지급, △교육시간 18시간에 대한 교육비 4억 원 추가지급, △5년간 노사발전기금 25억 원 지급,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무사고 포상금 100만 원 지급, △조합원 1인당 협상타결 격려금 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음.
- 사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일 최대 2일 적용, △2021년 시급 2.6% 인상,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지급 등을 수용했음.
- 쟁점사항은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 △협상타결 격려금 지급, △수정 제시된 정년 만 63세로 연장이었음.
- 노사는 종래 4일에 국한됐던 비근무자 유급휴일수당을 4일 더 늘려 연간 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음. 또 종래 60세였던 정년을 61세로 연장했으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한 차례 지원키로 했음.

◆ 금융 노사, 임금 2.4% 인상 잠정합의

- 10월 4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9월 30일 대표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음.

-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한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 또는 협의, 점심시간 동시 사용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음. 영업점 폐쇄 시 은행들은 고객불편 최소화과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기로 했음.
- 영업점 폐쇄와 동시에 거론되는 고용안정은 노사가 TF에서 논의기로 합의했음. 점심시간 동시 사용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기로 합의했음. 2020년 이 문제가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양측은 실태조사, 시범 운영을 합의했음.
- 올해 임금은 2.4% 인상으로 합의했고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음. 현재 시행 중인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음.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9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음.
- 다음,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음.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대상에 포함됨.
-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 의무이행 여부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함.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과 제3자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함.
- 시행령은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했음.

- 교육방법은 20시간 범위 내 운영하며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고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미이행 시 과태료는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5,000만 원으로 했음.
- 이 밖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규정,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했음.
- 공표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며,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함.

◆ 산재 미신고 및 은폐 사업장 과반이 '50인 미만' 사업장

- 10월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646건에 달했음. 이 중 산재 은폐 사건이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음.
-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58.6%를 차지했으며, 이어 50~299인 사업장(1,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000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음.
- 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미신고나 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17억 5,147만 원이었음.

◆ 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 10월 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총 84곳이고, 이 중 29곳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특별감독을 받은 21곳 중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10곳, 2018년은 18곳 중 8곳, 2019년은 19곳 중 7곳, 2020년은 26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했음.
-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은 감독을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 사망자 현황을 보면,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음.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현장 사고 92%가 ‘최초 2시간 이내 신고’ 위반

- 10월 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사고는 1만 606건이었음.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 이 중 최초 사고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92%(9,758건)였음.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3.2%(1,404건)로 나타났음. 시간대별로 보면, 2시간 이내 8%, 12시간 이내 12.6%, 1일 이하 4.3%로 24.9%가 하루 이내 신고했음. 이어 7일 이하 23.2%, 15일 이하 13.9%, 30일 이하 18.8%였음. 30일 초과는 19.3%였음.
- 사망사고의 경우도 2시간 이내 신고는 11.2%에 그쳤음. 12시간 이내 39.7%, 1일 이하 12.3%로 63.2%가 하루 이내 신고했음. 이어 7일 이하 25.2%, 15일 이하 3.3%, 30일 이하 2.1%, 30일 초과 6.2%였음.
-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60조(최초사고신고)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61조(사고조사 등)에는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5〉 건설사고 신고 소요시간 현황(2019. 7. 1.~2021. 8. 31.)

(단위: 건)

신고소요 시간		계	2시간 이하	12시간 이하	1일 이하	7일 이하	15일 이하	30일 이하	30일 초과
합계	사고 건수	10,606	848	1,334	455	2,459	1,477	1,991	2,042
		100.0%	8.0%	12.6%	4.3%	23.2%	13.9%	18.8%	19.3%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 서울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에 최대 70만 원 지원

-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서울 드림(Dream) 성장 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 중 취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 어학 학습 등에 최대 7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음. 교육청은 관련 예산으로 18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음.
-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보완하고 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음.
- 특성화고 70개교, 마이스터고 4개교에 재학 중인 2만 6,11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는 2021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3만 7,299명의 약 70%에 이르는 수치임.
- 지원영역은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영어 등 어학 공인인증시험 인증 취득, 전공 분야 고숙

련 기술훈련 과정 이수, 고교학점제 전공·부전공 실기 등 전문심화 과정 이수 등임.

◆ 서울에 '청년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 9월 26일 서울시는 20~30대 청년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10개 캠퍼스를 열고 연 2,000명의 4차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공계 졸업생과 인문계 졸업생을 나눠 교육과정을 운영함. 이공계 졸업생들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과정(8개 분야)을, 인문계 졸업생들은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과정(4개 분야)을 거침.
-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정보기술(IT) 및 SW 기업 401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인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직무 분야 등을 조사해 교육과정을 개발했음.
- 서울시는 수료생 전원의 취·창업을 위해 강소기업과 채용관심기업 등 서울시가 보유한 2,000개 이상 기업풀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임. 기존 교육기관의 일자리 지원이 취업교육·알선 단계에서 그쳤던 것과 달리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모집한 214개 채용관심기업을 바탕으로 수료생별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맞춤형 기업을 찾아주는 방식임.

◆ 경기도, 내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5.7% 인상

- 9월 30일 경기도는 2022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2021년보다 5.7% 인상하기로 했음.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1인당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올해(33만 7,000원)보다 1만 9,000원이 더 많은 35만 6,000원, 4개월 이하는 4만 원이 더 많은 74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5만 6,000원이 더 많은 104만 4,000원을 받게 됨. 8개월 이하는 6만 7,000원 더 많은 124만 6,000원, 10개월 이하는 7만 3,000원 더 많은 135만 3,000원, 12개월 기간제노동자는 7만 4,000원 더 많은 136만 5,000원을 받게 됨.
- 경기도는 8월 말 현재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을 대상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임.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2개월 이하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8%, 8개월 이하는 7%, 10개월 이하는 6%, 12개월 근무 시에는 5%를 적용하게 됨.

◆ 소규모 공공기관 절반이 ‘장애인 고용 의무’ 무시

- 9월 27일 노용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공공·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집계한 결과, 월 평균 상시직원 50~99인의 소규모 공공기관이 2.12%로 가장 낮았음.
- 상시직원 1,0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46%, 300~999인 공공기관은 3.84%, 100~299인 공공기관은 3.66%로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4%)을 넘었음.
- 100인 이상 공공기관들은 매년 3%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는데, 50~99인 공공기관은 2018년 1.92%, 2019년 1.96%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과는 대조적이었음.
- 50~99인 공공기관 155개 중 절반이 넘는 83개(53.5%)가 의무를 어겼음. 장애인 고용 의무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시직원이 80명이면 3.4%인 2.7명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2명만 채용하면 됨. 그렇게 계산하면 50~58인 기업은 1명, 59~88인 기업은 2명, 89~99인은 3명의 장애인만 고용하면 되는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임.
- 장애인 고용 의무는 50인 이상 기업에 부과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기업만 대상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로 체감되는 수준은 아님.

◆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 심각성 “C- 등급”

- 10월 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갑질종합지수는 ‘C-(19점)’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갑질지수는 민간 5~30인 미만 기업이 20.9점, 민간 30~300인 미만 기업이 21.5점으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15.9점)에 비해 5점이나 높았음.
- 50개 갑질 관련 문항 중 평균 점수 30점 이상으로 갑질이 심했던 항목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기 힘들다’(34.5점),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32.3점),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쉬기 어렵다’(32.2점), ‘불만이나 고충이 있어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30.6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30.1점) 순이

- 있음. 반대로 갑질이 덜한 항목은 폭행(6.6), 위협(7.0), 종교·후원강요(7.4), 반성문(8.2), 장기자랑(9.0) 등이었음.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289명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음. 이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한 비율은 32.5%였음. 괴롭힘으로 인한 의료적 진료·상담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가 64.4%에 달했음.
 -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5.7%로 가장 많았음. 이어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6.6%), 비슷한 직급 동료(15.6%), 고객·민원인 등(5.2%), 사용자의 친인척(3.1%) 순이었음.
 - 응답자의 47%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특성을 보면, 정규직(60%)이 비정규직(27.5%)보다 32.5%포인트나 높았다. 사업장별로도 공공기관(66.0%)·대기업(72.9%)이 5인 미만 사업장(15.6%)을 크게 웃돌았음. 노조원(78.9%)과 비노조원(42.5%), 사무직(58.4%)과 생산직(37.5%), 서비스직(34.8%) 등 직군별로도 교육 경험 유무의 차이가 컸음.
 - 갑질종합지수는 직장갑질119가 25개 유형의 갑질 경험, 조직문화, 예방대응체계 등 50개 갑질 관련 문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설문해 산출한 것임. 지수는 A(0~5점) 등급부터 F(26점 이상) 등급까지 나뉨.

◆ CCTV 등 디지털 노동감시 상담 6.5배로 급증

- 10월 1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약 6.5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음.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313건의 15%를 차지하는 수치임.
- 검찰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디지털 노동감시 관련 상담 현황을 보면,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하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CCTV 캡처본을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6년 9만 8,210건에서 지난해에는 17만 7,457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했음.
-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유형에 사업장 내 노동감시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